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전교인 대상 청지기 훈련

금주, 5월16일(수)-18일(금), 오후 7:30-9:30, 본당

예수께 속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자
(요 17:18)

체육대회가 마쳐졌고, 지난 주일에는 일꾼 선출도 마쳤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할 차례이다. 모두 이곳에 모여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자. 세상의 험한 물결에 휩쓸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줄 수 있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를 세상에 보내요" (요 17:18).

좌석배치 : 본당1층 -1교구 -12교구(교구맞말)
본당2층 -13교구 -17교구(교구맞말)
본당3층 -19교구, 제1, 2교구위원회 소속교사

.....

이동명, 김시주, 김규중, 마성락, 고문길
제명 출교 결의

교회는 지난 5월 9일(수) 청지리당을 열어 본 교회 안수집사인 이동명, 김시주, 김규중과 정지 중에는 마성락, 세례교인 고문길을 지리, 제명 출교하기로 했다.

안수집사 3인은 교회의 항존직 직원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충성·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정당한 처리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총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소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또한, 연말인사에서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자 봉사권을 박탈당했다며 당회의 인사권에 불복하였고,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을 사실인 양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난하였다.

정중적인 마성락은 상기 3인의 안수집사들이 법원에 고소한 내용에 동조하고 교회와 당회장을 비난하며 허무맹랑한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저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동행하였다.

세례교인 고문길은 인터넷 개인 사이트를 지난 2000년 8월 말부터 2001년 4월 중순까지 개설하여 소문에 근거한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 내용을 게재하여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공개적으로 교회와 당회장, 당회원들에 대한 비난, 조롱, 인격모독을 서슴치 않았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깨치고 교회의 권위와 당회의 결정들을 무시하는 반교회적 행동을 했다. 또한 소위 <청년연합>이라는 불법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대학부, 청년부 회원을 포섭하여 가입시키고 금기하는 <청년연합>을 소개하는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 IV, 권징조례 제1장 제2, 3조와 2000, 12, 06, 정경당회 결의(공개적인 반 교회 활동을 할 경우 제명출교에 처한다)를 위반하였다.

상기인들에게 장로들, 교사들, 안수집사회장단, 임원들, 간사, 회원들이 수차례 권면과 회개를 종용했으나 끝까지 듣지 않으므로 이를 계속 참치할 경우 마치 뉴욕이 신학하게 퍼져 나가듯이 악한 영향력이 선한 교인들에게 미쳐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에 처리하게 된 것이다.

체육대회 평가회

5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만나홀에서

지난 5월 1일, 수도공고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루어던 체육대회의 종합평가회는 5월 15일(화), 오후 6시30분에 만나홀에서 소모임, 참석객대는 본부 임원 및 위원, 본부 실행위원, 도우미, 각 팀 임원(단장 및 부단장, 응원단장, 서기, 회계, 총무, 각 경기 감독)들이다.

제34대 장로 8명, 안수집사 39명 피택, 권사 후보 60명 선출
오늘 저녁예배 후 피택자 교육 개강예배, 베다니홀에서

지난 주일 4부예배 후에 마련된 공동의회에서 노영환, 최지은, 박철주, 정정길, 신상수, 강철형, 고재승, 김영은 장로후보가 투표자 전체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음으로 피택되었다. 이들은 5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피택장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 또한 39명의 안수집사가 피택되었고, 60명의 권사후보가 선출되었으며, 이들 역시 동일한 기간동안 실시되는 안수집사 후보 교육과 권사 후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므로 이들이 후원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른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고전 4:2)

장로 피택자		장로후보		권사 후보자										
(나이순)		(나이순)		(가나다순)										
이름	교적번호	이름	교적번호	이름	교적번호									
노영환	82-506	1	장민수	86-572	10	이현재	3195	4						
최지은	1619	10	김진호	91-627	10	김정자	88-923	12	이종자	4204	12			
박철주	3025	12	이리곤	92-56	15	우소돈	82-648	4	김희성	79-96	7	김정자	88-165	6
정정길	80-711	13	이강근	89-1114	5	하빈선	82-645	3	김태현	87-215	9	전복실	4110	14
신상수	84-983	14	임성식	84-740	15	문광규	89-591	3	김희술	85-29	2	전성실	2386	2
강철형	81-977	17	최준호	908	13	전철원	87-809	5	나임자	86-450	3	정영희	84-135	14
고재승	4341	6	김수연	84-740	15				정명희	81-773	4	정명희	3835	17
김영은	3669	8	최성기	89-181	1	문광남	83-173	14	정명남	83-173	14	정명남	95-786	13
								권사 후보자						
								(가나다순)						
								이름						
								교적번호						
								박진성						
								82-31						
								박민호						
								87-591						
								4						
								박정남						
								86-326						
								7						
								김성우						
								88-744						
								3						
								신상국						
								84-1239						
								15						
								박진성						
								4115						
								2						
								김희순						
								1834						
								12						
								김정철						
								89-1455						
								6						
								김희자						
								91-799						
								7						
								김희태						
								82-364						
								7						
								김희기						
								87-618						
								1						
								김희자						
								2400						
								10						
								김희자						
								90-573						
								13						
								문순수						
								86-318						
								13						
								이희구						
								33-22						
								2						
								이석훈						
								4715						
								11						
								이연수						
								84-345						
								3						
								이연수						
								85-155						
								9						
								김영애(김기복 미함)						

지난 수요일에 매시지

시편 3편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詩)"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성경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겔26:8). 그는 범죄의 대가로 아들에게 쫓기는 극심한 고통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패망의 길을 걷는다고 여겼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알고 있다. 그는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조용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죄로 인한 파멸의 구렁이에서 일어섰고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많은 대적들과(1절) 자신의 조라함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2절),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명이시요 나의 머리를 덮는 재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성상(聖相)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4절). 하나님은 "봉제사 길"을 계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불렀다(5절). 주께서는 절대 그의 택하신 족속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다. 많은 장대군들이 팔레스타인의 '왕의 대로' (Kings Highway)를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성'이 아니라 영광을 쫓는 자는 없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을 정복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것처럼 말이다. 도리어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개인 신화를 만들고, 그가 참된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될 뿐이었다.

이제 다윗에게 두려움은 사라졌다(6절). 그것은

고난 중에 승리 (시 3:6-8)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시요 영명이시며 머리를 덮는 자가 자신은 그의 믿을 때로부터이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진다.' 마침내 다윗은 강한 용사가 되었고 참된 왕이 되시며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셨다(7절). 하나님의 낙한 승리를 바라보았다(8절). 연약한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네의 추악한 죄를 씻기 위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히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를 확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낙한 이김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6,8)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함을 이기지나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히 우리를 능욕함이 없다. 오히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을 수 없으리니"(롬 8:31, 37-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전 15:57).

Enemy's Funeral

(Joshua 10:22-27)

Joshua then said to them,
 "Do not fear or be dismayed!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thus the LORD will do to all your enemies with whom you fight."

After Moses' death, Joshua was commissioned by God to lead the Israelites in their conquest of Canaan (1:1-9). The conquering of the land was done in three segments; Central Canaan was first, followed by Southern Canaan, and then Northern Canaan. When the Gibeonites (Southern Canaan) heard what Joshua had done to Jericho and Ai (Central Canaan), they became extremely frightened. They knew that God had commanded Moses to give them all the land, and to destroy all its inhabitants. They heard the stories about how the Red Sea and Jordan River parted just for them. As such, they decided to trick the Israelites by pretending to come from a far country in order to make a covenant of peace with them (9:4-6). The men of Israel were deceived because they didn't ask for the counsel of the Lord (9:14). They made a covenant with the Gibeonites. After finding out that they had been fooled, the whole congregation wanted to kill them. Joshua and the leaders of Israel explained to the congregation how they could not go back on their oath because God's Word had been given (9:18-19). As a consequence, Joshua and the leaders of Israel made the Gibeonites servants, hewers of wood and drawers of water, for the house of God (9:23).

Now when the king of Jerusalem heard that Jericho and Ai had been utterly destroyed and that the inhabitants of Gibeon had made peace with Israel, he greatly feared (10:1-2). He formed a coalition with four other kings of Southern Canaan to attack Gibeon (10:3-4). These five kings united against Gibeon, not Israel, because they hated the Gibeonites for making peace with God's people. This historical event rings true even today. Whenever you become a child of God, all the world hates you. In this world people always fight against each other, but

when it comes to God's people they become one. As a Christian, everybody wants to attack you. The Bible tells us, "If you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chose you out of the world, because of this the world hates you" (Jn. 15:19). All the people of Southern Canaan hated Gibeon because they thought the Gibeonites believed in God.

When the five kings began their attack against Gibeon, Gibeon called for help from Joshua (Jos. 10:6). They pleaded with him not to abandon God's servants. Remember, the people of Israel were angry at the Gibeonites for their deception. The five kings of Southern Canaan were very strong and very familiar with hill country warfare because their land was also in hill country. Without Israel, Gibeon didn't stand a chance. At the time, Israel was camped at Gilgal, twenty-five miles downhill from Gibeon. Joshua moved quickly. He and all the valiant warriors of Israel traveled all night uphill to rescue Gibeon (10:7-9). Amazing! Joshua prayed to the Lord for help and large stones from heaven fell upon the enemy (10:11). More men died from the hailstones than those whom the sons of Israel killed with the sword. At this war, Joshua prayed for the sun and moon to stop (10:12-13). The Lord fought, not for Gibeon, but for Israel. The Gibeonites became Israel. We tend to think that the Gibeonites were really poor, worthless people who everybody disliked, but God loved them.

During battle, the five kings escaped and hid themselves in a cave. As you can imagine, these kings knew their territory quite well. They hid themselves where no man could possibly find them. Because of their expert knowledge in mountain landscapes, they felt quite safe. But God's eyes are like fire. He can find

anyone. So, Joshua was given their location (10:17). He had large stones rolled in front of the cave's entrance and stationed guards to watch over it until his return from slaying all the enemy. He conquered everything and gained absolute victory (10:20).

Upon his return to the cave, Joshua ordered the five kings to be brought out before him (10:22). He ordered the men of Israel to put their feet upon the king's necks and said, "Do not fear or be dismayed!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thus the Lord will do to all your enemies with whom you fight" (10:24-25). Joshua then put the kings to death and hung them on five trees till evening (10:26). What was the meaning of this? This was not a human curse but God's curse. Moses commanded Joshua to follow this way, "If a man has committed a sin worthy of death and he is put to death, and you hang him on a tree, his corpse shall not hang all night on the tree, but you shall surely bury him on the same day (for he who is hanged is accursed of God), so that you do not defile your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gives you as an inheritance" (Dt. 21:22-23).

These five kings were cursed. They had no hope, no salvation. They thought their best place of refuge was in the cave, but the Lord found them and brought them out. He hung them on a tree and cursed them. After that evening they were taken down and placed back in their cave. Large stones were rolled over the mouth of the cave that very same day (10:27). The enemy's funeral was hopeless and lifeless. Actually, their refuge became their grave. Their hiding place became their wasting place. In Revelation 6:15-16 we read of how some other people do the very same thing, "Then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 great men and the commanders and the rich and the strong and every slave and free man hid themselves in the caves and

among the rocks of the mountains; and they said to the mountains and to the rock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presence of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from the wrath of the Lamb'". What a paradox! Their safe place becomes a screaming hell.

As Jesus approached John the Baptist, John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Jesus became a sinner and Satan crucified Him on a tree, then put him in a cave, covered it with a large stone, and had it guarded. He followed God's method. He thought he had totally victory. He had Jesus hung on a cross, with a crown of thorns, hands and feet nailed, and His side pierced. A totally insulting death. An absolute death and perfect victory. But what happened? Three women approached Jesus' tomb and were wondering how they were going to roll away the stone in order to prepare His body (Mk. 16:3). "Looking up, they saw that the stone had been rolled away, although it was extremely large" (Mk. 16:4). An angel told them that Jesus wasn't there and to come in and see for themselves (Mk. 16:6). Jesus' tomb was a resurrection place, a victory place. Isn't that a wonderful victory? God's raised Jesus from the dead (Gal. 1:1)! There's total victory over death. That's why it's so sad that the enemy's funeral, like the five kings, has to end in defeat. What a paradox!

My dear friend, do you want to be God's enemy? Do you understand what your funeral will be like, no hope, no life, and no future. Open your heart to Jesus. Tell Him you are a sinner and ask Him to forgive you. Ask Him into your heart to become your Lord and Savior. Tell Him you want to be like a Gibeonite, a servant, His child. There's no place of refuge but in His arms. Come to Jesus and find victory. 



김성록 목사

원수의 장례식

(수 10:22~27)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기브온 족속과의 평화 조약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수 1:1-9).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을 세 구로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중앙지역, 가나안 남쪽지역, 그리고 가나안 북쪽지역으로 나누어서 점령하라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중앙지역인 예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불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과 모든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위험을 걸어서 건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먼 나라에서 평화조약을 맺으려 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수 9:4-6). 물론, 이 평화조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게 된 것입니다(수 9:14). 결국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고, 나중에서야 자신들이 이리저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들은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수 9:18, 19).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나무로 때고 물을 길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수 9:23).

가나안 다섯 왕들의 동맹

에루살렘 왕도 예리고성과 아이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과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수 10:1-2). 그는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기 위해서 즉시로 가나안 남부의 네 왕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10:3-4). 이 다섯 왕이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이유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온 언제나 서로 분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하

나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여러분을 공격하려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이 나의 택함을 입은 자 인도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요 15:19). 남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을 미워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위기와 은혜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수 10:6) 하나님의 종들을 버리지 말기를 간청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사실에 대해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하는 다섯 왕들은 사실 아주 강한 자들이었고, 남부 산지 지형과 그 관련된 전술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기브온은 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으로부터 약 25km 산지 아래에 있는 길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때에 행동하여 밤 새 산자를 올라가 기브온을 구출했습니다(10:7-9).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큰돌들이 하늘로부터 원수를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10:11).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들을 넘어 찾아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전쟁이 진행될 때,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10:12-13).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위해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즉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말 보잘 것 없고 비천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섯 왕의 피난지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다섯 왕들이 탈출하여 어느 한 동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측할 수 있듯이, 그들은 그 지역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장소로 피신해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들은 산지 지형에 대한 자신들의 탁월한 지식을 신뢰하면서 안도감을 느낄 것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불과 간섭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숨어 있는 장소가 알게 되었고(10:17), 큰돌을 굴러 그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린 후, 경비병을 세워 여호수아가 밖에 남아 있는 모든 적들을 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점령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10:20).

죽음에 이르게 된 다섯 왕

동굴로 다시 돌아온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10:22). 그리고 이스라엘 군장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 두르라고 명령했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10:25). 그리고 서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다섯 나무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저녁까지 놓아두었습니다(10:26).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시하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는대로 두지 말고 땅일에 장사하여 내 밤새도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신 21:22-23).

피난지는 무덤이 되고

이들 다섯 왕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나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숨은 동굴이 최고의 피난처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저주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시체들은 끌어내려졌고 동굴 안으로 다시 집어 던져졌습니다. 큰돌들은 그 날에 다시 동굴 앞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10:27). 원수의 장례는 소망도 없고 생명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찾아낸 피난처는 사실상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숨은 자리는 곧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15-16절에는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저주자들과 골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기대서 우리 위에 떨어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으셔와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리우라.” 대단한 역설이 아닙니까? 그들의 안전지대는 비명을 지르는 지옥이 됩니다.

부활 없는 원수의 장례식

예수께서 세세 요한에게 다가가실 때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예수께서는 죄인이 되었고, 사단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으며, 골 안에 가두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은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으며,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뿐 아니라 열구리마지 창으로 찔렀습니다. 완전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수에게 선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죽음과 완벽한 승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까이 갔고, 그의 몸을 장사지내기 위해서 입구의 돌을 어떻게 굴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막 16:3). “눈을 돌리면 죽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막 16:4). 한 천사가 예수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하였습니다(막 16:6, 7). 예수의 무덤은 부활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골 1:1). 죽음을 정복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참된 구원의 말

사망하는 종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장례식은 소망도 없고, 생명의 장례도 없고, 미래도 없는 장례식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이 기브온 족속과 같이 주의 종, 즉 그분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간구하십시오. 주의 발 외에는 그 어떤 피난처도 없습니다.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발견하십시오. **M**

희망의 땅,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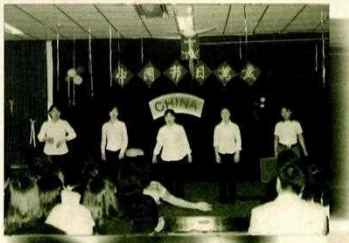
중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1%이다. 우리는 쉽게 이들이 모두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다수 국민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60%미만의 사람들 무종교이고 나머지 5%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중국 종교가 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독교도 6%를 넘어서고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최소 오천만 이상의 신자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1950년대 중국의 추이 장막으로 가리워졌을 때 사람들은 복음의 씨가 말랐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국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속에서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순히 오셨으며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있다. 한 목회자가 몇 십개의 회회를 지도해야 하고 서너개의 신학교 밖에 없어서 지도자들이 양성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복음이 토해져 나오고 있음을 자각하고 계신다.

중국본토가 복음화 된다면 지금 미국교회 이상의 기동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세계 선교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선교는 그 자체의 힘이 머무르지 않는 세계복음화의 희망이다.

하지만, 중국 선교를 이런 원론적인 의미에서만 보는 것은 많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현재로써는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통제사회이기에 종교적인 억압과 통제 효과가 극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면서도 이제까지의 정통적인 선교방법으로의 중국적 접근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따라서 새로운 선교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제안되고 있는 것이 재외 중국인 선교와 비거주 선교사 파송이다.

이런 면에서 외선부가 담당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



사역은 그 의미가 크다. 현재 외선부에는 30명의 중국인이 출생하고 있다. 그 중 10여 명은 중국교도이고 20여 명은 한국인 순수 중국인이다. 이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복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으며 마음이 열려있다.

주일 오전 10시가 되면 본당 6층 옥탑방과 지하 1층 아문홀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로 분리하여 성경공부를 한다. 전도사와 교사들과 함께 모여 가족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경공부를 한다. 집회와 4주에 배는 자연스러운 교제와 공부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3시에 중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돌아가면 교사들이 따로 모여 중국어를 공부한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 이들과 좀 더 다가가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어공부를 하고 있다.

중국집에서는 벌써 열반 가량이 충헌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또 여러 학습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

비하고 있다. 이 분들은 충헌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가을에는 독일에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중이다. 이들은 통해서 충헌교회 안의 작은 중국이 복음으로 충헌해 지기를 기도한다.

기도제목

1. 교회에 찾아오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2. 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이 성령충만하도록
3. 중국어 독립집회기 이루어지도록
4. 충헌교회 중국팀이 중국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죽의 장막: 1945년 중국 전체가 공산화되면서 중국 본토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은 강제로 추방되었고 사회주의의 논리에 맞지 않는 모든 종교가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박해와 정치적 변동이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목격되지 않는 지역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

재외 중국인 선교: 중국본토를 떠나 사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회교와 중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교를 통해 많은 재외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중 예수 그리스도도를 영접한 재외 중국인들의 귀국으로 자연스럽게 본국으로도 복음이 들어가기 되었다.

비거주 선교사: 선교지에서 살지 않고 방문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지칭한다. 이는 주로 이슬람 국가와 같이 기독교도가 적고 엄격히 금지된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 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선교전략으로 주로 사역없이 여행, 봉사 등의 목적으로 정해놓은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다.

나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

5년 전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을 때 꿈만 같던 죽음이라는 문제가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르시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잠을 이루 수 없었고 처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도했다.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해 참 많은 자제들의 위로와 방문이 있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부부님들은 교회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요원복에 마비가 풀리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정말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가족의 구원 문제는 그리 많은 시간 내로 이르지 않았다. 마치 끊임없는 싸움같이 보였고 나는 지쳐갔다. 간혹 밀지 않는 가족에서 태어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남들은 부부적인 기도를 받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신양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이기적인 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금 생겼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주신데 그분의 사랑! 정말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하니까? 물론 사랑한다. 그렇다면 가장 소중한 것은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었기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길 원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더욱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 가족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조목씩 우리 가족 안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느낀다. 올해 오빠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조카들 모두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다. 결국 가족을 향한 오랜 기도는 나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구원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였고, 그분의 사랑 역사하심을 느낀다는 것은 계기가 되었다 것이다. "우리가 알거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야 선을 이루는 나" (롬 8: 28)

(염정식 기자)

증인이 되기위한 한 걸음의 나아감

믿음.

임태하 라는 내가 '군선교사' 이고 군대가 나의 '선교지' 라 생각했고, 방갈라에서 단기선교를 떠날 때에도 나는 주님의 증인이라 확신했다. 두 선교지로 떠나며 '전도' 만을 생각했고 나는 주님을 분명히 '안다' 고 믿었다.

생각.

이동별·일별 시절에는 아직 고찰들의 눈이 있어 후임병들을 많이 돌아보지 못했지만, 항상 고찰이 되면 후임병들과 성경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찰이 되면서 몇몇 후임병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학교와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을, 교재를 기초로 가르치면 되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 성경공부는 2년6개월이란 시간 속에서 그날 단 하루만 이루어졌다. 말씀을 분명히 '안다' 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태후 후단기선교를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현지인(現地人)들을 만나기 보다 한인(韓人)들을 만난다는 시간이 더 많았던 나는 점점 '나는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라만단(모슬렘 한달 금식기간) 기간동안 최전방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러 생각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 라만단 기간이 나에게겐 참 안식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기도 없는 나의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다.

결단.

주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기도를 안다는 나의 신화(myths)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말씀을 보지 않는 으면서 '이 이렇게 해야지' 하며 무수한 결단을 내리고 그에 만족했고, 결단을 내린 정도에 스스로 감탄하며 이 정도면 된다고 위안했다.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며 '나아감' 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진정한 '알' 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하냐 항상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을 뿐, 구체적인 나아감이나 나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해한 그 결단을 하려던 주지지는 것이라 믿어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결단으로만 끝나고, 더 이상 나아간다는 것에는 왠지 모르게 주저하였다. 나아가면 뭔가 귀찮을

것 같고 부담될 것 같아서였다.

청년부에서 성경공부를 하며 '순종' 에 대해 생각했다. '순종이란 나아감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또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 결단은 선택기되었다.

나아감.

선택기도를 나간다는 생각이 항상 결단에서만 끝났던 나에게 이러한 결단은 새로웠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그대로 나아가기 정말로 일을 누리게 될텐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나아감을 결단한 후 며칠은 참성을 못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 잊은 나아감, 배움의 나아감, 예수님의 나아감의 모습이 아직은 내 모습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결단한 거듭하던 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사실에 지금은 감사할 뿐이다. 과연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을, 말씀을, 기도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할 때도 있지만, 응답하심에는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과 순종과 함께 주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재조각' 과 나아감 '증인' 이 되기를 아직은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로 나아간다.

(이종원 기자)

선교위원회 전체 기도모임

- 대상: 1. 2001 여름단기선교 참가자 전원(필히 참석)
2. LMTC 수감생 및 스태프 전원
3. 외선부 교사 전원
4.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전원
5. 선교단 단기선교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 일시: 24일(목) 18:00 장소: 민나홀

기도제목

1. 선교지역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2. 2001 여름단기선교를 통해 복음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3. 본교회 헌신단 단기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잘 준비된 일꾼이 되도록(LMTC)
4. 외국인 근로자 사역의 활성화



같이 봉사하는 대학부 주교 편집국원들과 찍은 사진이래요
우측에서부터 6번째에 있는 지대가 배유나 저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배 유 나 (대학부 3학년)

월요일이 되면 대학부의 지체들은 정신없이 보냈던 주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그럼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스스럼없이 웃어버리는 대학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이 많은 대학부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어쩌면 평일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주일을 보냈다고 특별히 티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일이 되면 토요일 대학부 집회 때 보았던 많은 지체들을 아침부터 또다시 보게 된다.

대학부의 모임도 모임이지만, 우리 교회의 이곳 저곳, 교사나 찬양대, 외선부, 5부원급위원, 카페 라면 등 다양한 모습들로 여러 부서를 섬기는 대학부 지체를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것이다.

봉사하는 모습들은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같이 귀한 영혼들이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학부의 지체로 여러 곳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기만 한다.

내일이면 다시 월요일이 시작된다. 비록 월요일이 되면 정신을 못 차려 남들이 보기엔 더욱 피곤해 보일지도 모르나,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계신 주님 때문 이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10)



문의 및 아이디어제출: minj74@jaangminn.com

2001 May 13
주과중현만영
Cartoon by JaangMinn

요나단의 승리

변영현 (대학부 3학년)

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숨은 상태에서, 요나단은 방기 든 소년에게 여호와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함을 이유로 나아가자고 한다. 여기서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불리해 보인다고 숨어버리는 사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평으로 나아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조장으로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원들이 험기위할 때, 혹은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내 자신과 반대인 요나단을 본다. 승리를 주시고 전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진 요나단. 이를 통해 참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 나도 이러한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

스스로 자기 패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세움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야겠다.

살아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악할지라도 요나단이나 주님과 같이 성령님의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내 자신이 순간 순간마다 부인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생각이 든다.

배한 폭의 차이

김창배 (대학부 4학년)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요한복음 21:6)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한 마라도 잡지 못한 상태였다. 예수님께서서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고 순종했던 제자들은 그때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성공을 향해 노력한다. 우리들도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적은 노력을 들여 빠르게 성공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을 때 항상 그물을 배 왼쪽으로만 던졌었다. 배 오른쪽과 배 왼쪽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작은 차이가 어부에게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이 작은 배한 폭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를 우리가 발견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배한 폭의 차이를 알아내기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알려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 모든 사람의 개성이 다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다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할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아가다 때 우리는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한다. 그 말씀은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작은 차이를 알게 해주실 것이며 그 작은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따스한 날씨와 행사가 많은 5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이러한 느낌과는 다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각자의 고민과 상황은 물리지만, 그들이 겪고 지나가야 할 일들은 너무나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나에게 특별히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요즘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으로 나아가갈 때가 많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나온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다. 군대의 수나 여러 가지 주변적 상황들도 불리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안목을 지닌 두 사람이 나온다. 이

내 일술의 전승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인선

(안수집사, 가브리엘찬양대, 12교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이다. 40여 년 동안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주위 환경 여건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나는 3개의 찬양대·아멘찬양대·시온찬양대·실로암찬양대·에서 봉사하며 교회당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교우들과도 함께 찬양하면서 조금이라도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래서 언제나 주일엔 동료 성도들과 손을 맞잡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서로 힘이 되며, 예수님에게 칭찬 받는 자녀로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가길 것을 다짐해 본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행복하다.

실로암찬양대원으로 10년을 봉사하고서 1988년말에 지휘자에게, "환경이나 주위 여건이 맞지 않아 그만 두어야겠다"라고 하니까, 지휘자(찬양감독)가, "집사님! 천국에 일찍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천국가는 일 외에는 계속하십시오." 하시며 만류하여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도 2년을 더 봉사하였다.

2001년도에는 교회내의 변화로, 가브리엘찬양대에서 봉사하며 기쁨에 지낸다. 좋은 지휘자를 만나며, 믿음의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이른 새벽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찬양을 하며 그것에 심취해 있는 경우 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옛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식하다고 기록되었듯이 우리 찬양대원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음이 분명하다. 찬양 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웃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남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나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김영희 (16교구)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야고보서 1:13)

4월 한 달 동안 남편의 감기로 인해 건강에 자신했어하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기에 좋다는 말을 듣고 적절 모자차, 배플자를 만들고, 한약도 지어 먹이고 은행도 붓아 주면서 밤마다 기침과 고열로 고생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했을 때 무척 속상했었지요. 이러한 여러가지 노력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짜증과 불만으로 인해 마음 속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려 했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셨지요.

남편이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앞으로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드리며 하나님 우선 순위로 살아가길 원해요.

가정에 드릴 때에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7교구 이재덕 성도(남83세) 골반 골절 수술 후 장출혈이 있어 장남 시립 병원 472호에 입원해 있습니다.

10교구 이영일 안수집사(남62세)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 투석요법으로 치료 중입니다.

15교구 노봉관 성도(여44세) 폐암으로 충남 홍성 의료원에 입원중이며, 현재 의식불명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진정어린 위로가 요구되는 환우들을 위해
쉬지 말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오.

펠리컨 이야기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 마을은 오랫동안 펠리컨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씻을 때 잔치는 모두 먼저 버렸는데 이것이 펠리컨들에게는 기가 막힌 간식거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펠리컨들은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방에 널린 잔치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웠으며 날로 살이 찌고 한편으로는 게을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부들이 먼저 버리던 것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도 펠리컨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생각을 않고 여전히 버려진 것만 찾아 다녔습니다. 여기 저기 막연히 어슬렁거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는데, 점점 점점 기운을 잃어 갔습니다. 결국 펠리컨들은 한두 마리씩 굶어 죽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어부들은 도대체 왜 굶어 죽는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어부들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좀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으로부터 먹이를 스스로 잡을 줄 아는 펠리컨을 몇 마리 수입하여 풀어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적중하였습니다. 새로 온 이 펠리컨들이 굶어 죽어가는 친구들에게로 들어가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온 친구들이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그 굶주리던 펠리컨들도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쨌거나 없이 굶어 죽어가던 펠리컨들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영적으로 먹여주는 데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스스로 말씀 속에서 영적양식을 찾는 법을 잊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영적으로 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할 때 굶어 죽어가면 펠리컨들처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또한 규칙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자들로 성장에 가길 원하십니다.

(16교구 성도)

따뜻한 이야기

꽃을 심는 마음

4월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바쁘게 식목일을 전후하여 꽃을 심는 마음으로 바쁘게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8년째,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교회와 회관에 금잔화와 분꽃을 심어 오신다. 그분은 다른 아님 동문 경비실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충원교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남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가 회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기도 중에 꽃을 심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도 꽃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해마다 꽃을 심으면서 제일 기쁜 일이 있다면 애마다부 친구들이 터져가는 꽃밭을 보면서 운운으로 기뻐하며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 때라

고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개인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한다고 하시는 집사님. 하지만 때때로 차를 거꾸로 주차시켜 배기기를 회전에 마구 뿜어 내는 성도들이 계시어서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하마만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집사님께서는 꽃 알르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실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꽃을 심는 집사님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꽃밭을처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 마음 속에 아름다움을 심어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대해 주시는 집사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사춘기란 모든 사람이 한번쯤 잠깐 거치는 정신병기'라고 했다. 오늘날 청소년과 접촉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불길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귀한 인적 자원으로 인정받는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청소년들을 점점 잃어 가는 실정이고 이것에 대처할 만한 좋은 대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른들은 자유를 뛰어넘는 그들의 방종한 생활이 문제를 일으킨다며 '그들의 난개를 자르자'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는 이러한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이로써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어 간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은 부모, 어른들의 통제를 무시하고 동료 집단, 성적인 호기심, 자신들만의 세계로 관심을 돌린다. 나는 누구며, 나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등은 그들이 자기와 세상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던지는 주요 질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히 얻지 못하면 그 내면적인 갈등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로 표출되는 것이다. 내면과 외면적인 갈등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 청소년들은 이것으로부터 도피하려 한다. 정체성을 찾는다는 압박감은 이런 도피를 통해 자기를 정당화시킨다.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해답을 누군가에게서 듣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중등 1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 가운데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 중의 하나로 'GOD와의 만남'(친구초청전지)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약 두 달 여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충실하고의 출석 교인 자녀 중 복음 학생과 장기 결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출석운동인 **잃은 양 찾기**, 지역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운동



"GOD와의 만남"

김영진 (전도사, 중등1부 부지도)

구마(전신자)가 되도록 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여진 구구마들은 하늘 나라 곳간에 차곡차곡 쌓여질 것이다.

예전보다는 훨씬 소수의 청소년들이나 교회 예배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찾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로 의문과 욕구와 관심을 직접적이고도 강하게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한다.

복음만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의 정확한 심정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만나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그분께 내어 드린다면 청소년들을 향한 복음적인 접촉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 학교, 사회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지금 중등 2부에서는

나 성애 (중등 2부 교사)

저희 중등 2부에서는 오는 5월 27일 주일을 새 친구 초청 전도 잔치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목사님께서는 10여명의 교사들을 전도 특공대로 따로 세우시고 먼저 기도로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집사님, 이 맥 쥬스 드시고 시작해요."

"이 음료가 뭐란 건 드시고..."

"찬송은 몇 장으로..."

"주님! 저희들의 기도 모임을 통해 새 친구를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잃은 양도 찾게 하시라..."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교제와 찬송까지 어우러져 참신한 교사들의 얼굴은 이미 전도와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런 첫 모임을 시작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지난 5월 6일 주일까지 각 반에서는 2명씩 전도 할 친구를 정해 놓고 두 번째 음미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편지를 받게 될 친구의 마음에 오래도록 설레임으로 남아 있을 글들을 골라 넣었지요.

"집사님,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꿔나 알아 맞춰 보실래요?"

"교실같은 내로진 연못에서 소쿠리째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요."

"그때! 학교 앞으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리고 그물도 던져보자구."

저만치 가고 있는 봄의 팔자락에 한데 어우러져 주님의 창조조의 솜씨를 소리 없이 외쳐 대는 봄꽃들의 아름다운 반향이 지금 우리 중등 2부에서 터져 나오는 아우성도 대단합니다.

"애들아, 바로 그거란다. 좀 더 담대하게, 나만 보는 거야"

주께서 웃으시며 응원하시는지 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본지니



아름다운 은빛 발걸음

인듯 스치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숙모님께서는 몇 년전 삼촌과 사별하신 후 홀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 숙모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제목은 두 딸의 결혼문제였을 터.

열마전 엄마가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음성으로 내게 전화를 하셨다. 숙모님 큰 딸이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형제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런데 이 어저는 엄마의 이야기는 예비신랑보다는 사촌 동생의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 노부부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중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위해 선교훈련을 받으시는 중이었다.

사촌 동생이 이분들을 처음으로 인사드리려 가던 날, 숙모님은 머뭇머뭇 선물로 준비해 보내셨지만,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똑같은 의식주 생활을 하실 거라며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한다.

또 사시던 집도 예비신랑이 아들이 사게 하였고, 그 대금으로 선교훈련부터 그 이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신다고 한다. 또 여러사정으로 원하던 대학원 진학을 미루어 온 예비 며느리의 공부 뒷바라지를 아들이 책임지도록 신신당부하시더라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이분들의 사촌 동생과 얼굴도 보지 못한 선교지의 현지인들에 대한 사려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마음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하는 도전도 받았다.

결코 절지 않은 애, 때때면 더 편히 쉬고 싶을 노년기에 하나님을 위해 용기있는 믿음으로 내딛는 이들 노부부의 발걸음이 정경 아름답고 향기롭지 않은가?

(엄혜원 기자)

교 회 소 식

모임

1. 장로 할로새벽기도회
일시: 14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 회교새벽기도회
일시: 15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배후관 109호
3. 전도위원회 합동회
일시: 오늘 10:30
장소: 전도위원회실
4. 남나선도부 합동회
일시: 27일 15:15
장소: 관민동
5. 학원전도회 합동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본당 지하 110호
6. 경찰전도회 합동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배후라기움
7. 권사2지회 합동회
일시: 16일(수) 주요일부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나선도부

1. 바울 4지회 합동회
일시: 20일(주) 교구모임 후
장소: 복지관 지하층 교구모임 장소
2. 바울 5지회 합동회
일시: 20일(주) 15:00
장소: 교육관 228호(신촌가정부실)
3. 바울 6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407호
4. 바울 7지회 합동회
일시: 20일(주) 교구모임 후
장소: 배후산양대실
5. 바울 9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관민리움
6. 바울 10지회 합동회
일시: 20일(주) 교구모임 후
장소: 복지관 지하층
7. 바울 11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구모임 장소
8. 바울 16지회 합동회 및 노병전도
일시: 19일(토) 15:00
장소: 교육관 109호
9. 베드로 2지회 합동회 및 노병전도
일시: 19일(토) 17:30/19:00
장소: 양구영(노병전도실)
김두봉 장로회

(한글) 774호 ☎5120695

10. 베드로 4지회 합동회 및 노병전도
일시: 19일(토) 19:00
장소: 김준호 집사(☎564988)
11. 베드로 5지회 합동회 및 노병전도
일시: 19일(토) 19:30(부부만)
12. 베드로 6지회 합동회
일시: 19일(토) 19:30
장소: 김철민 집사
13. 베드로 11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14. 베드로 16지회 합동회
일시: 20일(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13호
15. 요한 6지회 합동회
일시: 15일(목) 06:00(새벽기도회 후)
장소: 관민리움
16. 요한 8지회 합동회
일시: 20일(주) 12:00
장소: 신교관 영아부실
17. 요한 17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이복문 집사(☎77-0903)
18. 요한 15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제2교육관 203호
19. 요한 2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305호
20. 한나 3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구모임 장소
21. 한나 5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201호(신촌가정부실)
22. 한나 7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이복문
23. 한나 8지회 합동회
일시: 15일(토) 10:00
장소: 어린이대공원 방문 앞
24. 한나 9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관민리움
25. 한나 10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용산역 지하층
26. 한나 12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영아부실
27. 한나 14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관민리움

28. 한나 16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14호
29. 예스도 3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205호
30. 예스도 6지회 합동회
일시: 17일(목) 10:00
장소: 송림리움 동문(5호선 송림역, 버스 302-22호 송림리움-송신상(5호선 하차))
31. 예스도 7지회 합동회
일시: 20일(주) 교구모임 후
장소: 이복문
32. 예스도 12지회 합동회
일시: 20일(주) 교구모임 후
장소: 관민리움
33. 루디 4지회 합동회
일시: 17일(목) 11:00
장소: 영아부실
34. 루디 5지회 합동회
일시: 대안산합동회
장소: 20일(주) 교구모임 후
장소: 관민리움
35. 루디 10지회 합동회
일시: 15일(토) 11:00
장소: 4. 10시지 분수대
36. 루디 14지회 합동회
일시: 15일(토) 11:00
장소: 이복문 집사(☎59-1601)
37. 루디 15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배후라기움
38. 루디 16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14호
39. 미라미 4지회 합동회
일시: 15일(토) 10:30
장소: 양재동 조카방
40. 미라미 6지회 합동회
(유족명: 016-255-3140)
일시: 15일(토) 11:00
장소: 유아부실
41. 미라미 10지회 합동회
일시: 15일(토) 10:30
장소: 전산의 집사(☎596-4130)
42. 미라미 13지회 합동회
일시: 오늘 12:10
장소: 관민리움

별세

1. 유종연 성도
(이복문 집사의 장모, 화곡성 집사의 모친,
2교구 한태구(주) / 6월 별세, 8월 장례
2. 김택식 성도

(이복식 집사의 모친, 김경문 성도의 장모,
9교구 양구(주) / 6월 별세, 8월 장례

결혼

1. 황한균 군(황기성 성도, 한동원 집사의 아들, 16교구)와 이연숙 양(이복문 주, 최구자 사모의 딸) / 13일 13:00 관민리움
2. 김진철 군(한성훈 씨의 아들, 16교구)와 김진성 양(김정길 장모, 오순호 관사의 딸) / 17일(목) 12:30 관민리움
3. 김동일 군(김덕순 씨의 아들, 7교구)와 송혜정 양(송승호 씨, 황천익 씨의 딸, 7교구) / 19일(토) 14:30 양재동조카방 3층 연식(☎57-1122)
4. 이동영 군(이복 씨, 이문자 씨의 아들)과 김은종 양(김영현 집사, 김재자 집사의 딸, 8교구) / 19일(토) 14:30 양재동조카방 3층 연식(☎57-1122)

주 소 변 경

1. 김병철 안수집사, 박혜미 집사 주교 신임 6동 840번 / 한대교(☎59-608) ☎252-8183
2. 한은진 집사, 김경현 집사 노구동 중계 8동 515-2 신명24동 101-507 ☎971-5458

증증3부 "읽은 양 창기"

일시: 20일(주) 09:00~11:00
장소: 교육관 507호

타이부 부초초전지

일시: 오늘 12:00~13:00
장소: 타이부실

충현중보의장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지하심으로 종성한 영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여 주시어,
2. 김창민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에 불타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사로 자신을 하나님 안에 드리기를 힘쓰시어 하소서.
4.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6.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간 성경공부 및 영성훈련 휴강 공고

청지기 훈련 관계로 16일(수) 주간 성경공부와 남남도 구역장 영성훈련이, 일직 예배 관계로 23일(수) 남남도 구역장 영성훈련이 휴강한다.

교역자 인사

교회는 5월 9일(수) 당회를 통해서 교역자 인사 이동을 결정했다. 6교구에는 나광영 목사, 7교구에는 정진호 목사, 그리고 8교구에는 오윤진 교육전도사가 각각 청빙되었다. 또한 봉사위원회의 지도에 노경복 목사, 예배위원의 성례부 지도에는 이복주 전도사, 신촌가정부 지도에 방준영 목사, 청년1부 부지도에 김경배 교육전도사가 임명되었다. 새로 임명된 이들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자.



나광영 목사
(1962년 생)

정진호 목사
(1967년 생)

오윤진 전도사
(1974년 생)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402	정진호	1	교역자		411	곽규집	19	대학부	임은영(19)
403	권운구	2	청년2부		412	송혜정	19	청년1부	
404	김경남	2	차혜숙(2)		413	안신혜	19	청년1부	김달수(10)
405	박옥순	2	루디아	정복순(2)	414	정영식	19	청년1부	
406	정용배	4	청년2부		415	최윤영	19	청년1부	강정민(6)
407	최종관	8	바울	유종곤(8)	416	정연옥	8	청년2부	장재성(8)
408	박창종	9	청년3부	정해구(9)	417	이은지	19	대학부	
409	주부식	14	청년1부	김달수(10)	418	이정민	19	청년1부	최은아(2)
410	한경희	14	청년1부	김달수(10)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 | | | |
|---------------------|---------------------|---------------------|---------------------|
| 김기철
신도부실
장로부실 | 조산근
기복원
신도부실 | 김은호
신도부실
장로부실 | 노경현
신도부실
장로부실 |
| 오진규
신도부실
장로부실 | 이병학
신도부실
장로부실 | 윤인환
신도부실
장로부실 | 최대환
신도부실
장로부실 |
| 원영선
신도부실
장로부실 | 장동우
신도부실
장로부실 | 오정현
신도부실
장로부실 | 이 훈
신도부실
장로부실 |
| 남수우
신도부실
장로부실 | 사동석
신도부실
장로부실 | 정성식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영길
신도부실
장로부실 |
| 문용주
신도부실
장로부실 | 조인재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종구
신도부실
장로부실 | 최무길
신도부실
장로부실 |
| 김현석
신도부실
장로부실 | 이창호
신도부실
장로부실 | 차산도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계명
신도부실
장로부실 |
| 박영식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광남
신도부실
장로부실 | 이종식
신도부실
장로부실 | 윤성철
신도부실
장로부실 |
| 이하영
신도부실
장로부실 | 박민진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민진
신도부실
장로부실 | 이병욱
신도부실
장로부실 |
| 안종우
신도부실
장로부실 | 최희만
신도부실
장로부실 | 임무현
신도부실
장로부실 | 이종철
신도부실
장로부실 |
| 최기홍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재환
신도부실
장로부실 | 전종용
신도부실
장로부실 | 전종현
신도부실
장로부실 |
| 이정우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단우
신도부실
장로부실 | 황영일
신도부실
장로부실 | 은 철
신도부실
장로부실 |
| 한승철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영수
신도부실
장로부실 | 정종수
신도부실
장로부실 | 김한기
신도부실
장로부실 |
| 김구형
신도부실
장로부실 | 최윤덕
신도부실
장로부실 | 이계인
신도부실
장로부실 | 박덕양
신도부실
장로부실 |
| 이대식
신도부실
장로부실 | 정재두
신도부실
장로부실 | 박종구
신도부실
장로부실 | 권영욱
신도부실
장로부실 |
| 최상현
신도부실
장로부실 | | | |

■ 부목사

- | | | | | |
|---------------------------------|---------------------------------|---------------------------------|---------------------------------|---------------------------------|
| 이종성
김병태
여영진
김영훈
이유진 | 이종대
서광진
유병희
여국진
이창진 | 정현민
장혜성
김교정
김종환
장준영 | 김동하
이준경
임재훈
송홍환
이수근 | 차병준
박인기
이종철
이수근
정진호 |
| ■ 선교사 | 한정호
이영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 정영일
이영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 김영일
이영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 이수근
이수근
이수근
이수근
이수근 |
| ■ 협력선교사 |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
| ■ 찬양감독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 ■ 기도선사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 ■ 기도선사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김영일 |

■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	본당
V	오전 3:00	본당
VI	오전 5:00	본당
VII	오전 7:30	본당
VIII	오전 9:00	본당